

봄의 낭만...다시 불 밝히는 '강진의 금요일 밤 파티'

군, 내일 '불금불파' 개장...공연·체험·캠프니 등 가동 할머니장터·아트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살거리 제공

강진군은 3일 올 상반기 '강진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행사'를 개장하고, 강진의 봄밤을 품은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강진 불금불파 행사'는 공연과 체험, 먹거리와 휴식이 어우러진 강진의 대표 야간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정취와 사람의 온기를 담아 강진만의 밤을 특별하게 만드는 야간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머무르며 즐기

는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지역의 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불금불파는 계절의 감성과 월별 테마를 살린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스페셜 월데이·월장르' 방식의 무대를 마련해 하나의 장르가 지닌 매력을 더욱 깊이 있게 선보일 예정이다. 장르별 특색을 살린

집중형 공연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선명한 감동과 몰입감 있는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첫 무대는 '봄의 낭만'을 주제로 한 어쿠스틱 공연으로 11일 펼쳐진다. 따뜻하고 잔잔한 선율이 봄밤의 정취와 어우러져 강진의 밤을 한층 더 로맨틱하게 물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3일 특별 가수 '싸이버거' 공연도 예정돼 있어 상반기 개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체험형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된다. 큰 호응을 얻었던 '돌아온 병영 캠프니(불금불파 텐트촌)'은 기존 토요일~일요일 운영에서 금요일~토요일, 토요일~일요일로 확대 추진되며, 하멜텐트촌 또한 금

요일~토요일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족·연인·친구 단위 방문객들이 머무르며 강진의 밤을 보다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텐트촌 운영 관련 홍보와 예약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해 온라인 중심의 홍보와 참여자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할머니장터, 농부장터 및 아트마켓, 병영 상생플랫폼도 함께 열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살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 참여형 장터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일상과 정취를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과 지역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려는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



강진군은 3일 올 상반기 '강진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행사'를 개장하고, 강진의 봄밤을 품은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사진제공=강진군청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영산강정원에 다채로운 봄꽃을 식재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화사한 봄 경관을 조성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나주, 영산강정원 화사한 봄꽃 단장

팬지·데이지·비올라 등 식재...힐링 명소 기대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영산강정원 입구 화단을 중심으로 팬지, 데이지, 비올라, 금잔화 등 다양한 봄꽃을 식재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화사한 봄 경관을 조성했다. 정원 곳곳에는 지난해 식재한 수선화가 개화를 시작했으며, 팬지와 데이지, 비올라를 비롯해 오스테우스퍼멈, 크리산세멈, 리빙스톤데이지 등 대형색채의 봄꽃이 더해져 한층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

고 있다. 특히 꽃양귀비, 끈끈이대나물, 황화 코스모스 등은 오는 5월 중순 개화를 앞두고 있어 봄부터 초여름까지 이어지는 계절별 꽃 릴레이 경관이 기대된다. 이번 봄꽃 식재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정원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쾌적한 정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정비도 시민 참여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2월 28일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환경정비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으며 국립나주습지원, 기관 및 사회단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이동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시민들의 참여로 깨끗해진 공간 위에 봄꽃을 더해 더욱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꽃 식재와 체계적인 관리로 영산강정원을 대표 힐링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해남, 첨단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추진

AI·데이터·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해남군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데이터,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데이터, 반도체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지역 경

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정의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해남군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시설 건립·장비 구축 등 기반 조성, 연구개발의 실용화·기술사업화 지원, 생산제품의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엑스포·학술대회·포럼 등 행사 개최·홍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첨단산업시설의 구축·운영, 숙소·편의시설·보육시설·복지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첨단사

업시설 구축 및 확충도 지원할 수 있다. 투자 기업들의 정착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운영해 인허가 등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담당 부서와 관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사업 추진의 결림돌을 즉각 제거하는 '웬스톱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산업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행보에 발맞춰 급진한 미래 산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목포,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적'

4개월분 물량 선제 확보

목포시가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총 4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현재 목포시는 약 한 달 분량의 종량제봉투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0만매를 긴급 발주한 상태다. 해당 물량은 3일부 터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 납품 예정이며, 이를 포함하면 총 4개월분의 종량제봉투가 확보된다. 또 제조업체는 약 6개월 분량의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핵심 원료를 비축하고 있어 향후 봉투 생산과 공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부 점포에서 발생하는 과다 주문과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판매점별 발주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균형 있는 유통을 위해 '점포별 균형 공급'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시민들이 불편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일부 판매점의 구매 수량 제한은 각 점포 재고 상황에 따른 자율적 조치로 수급 전반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이윤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초대석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균형 이루는 데 힘 쏟겠다"

초대석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위원장
"문화중심도시 광주, 시민 지지가 완성의 힘"

이달의 CEO



정태영 스톤엑션 대표
페어양, 가방으로 재탄생 해양쓰레기 자원 순환

화제의 인물



오금석 (주)아생엔터비 대표
꿀벌로 일군 50년, 한국 양봉의 길을 바꾸다

2026.04 vol. 155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략도인

구독문의: (062)370-7080 광고문의: (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손죽도
진달래 향에 봄소식 싱고
화전에 봄의 풍류 담았다

포커스



여수산단 생산 차질 현실화...
중등 리스크 직격탄

커버스토리



윤호열 전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전남 바이오 '제2창업'
국가 전략산업 도약 발판 마련